

문 닫은 실내 체육시설 개방 '감감 무소식'

코로나19 감염 우려따라 지난 2월부터 운영 전면 중단 동호인 "폐쇄 장기화로 피로감... 철저한 방역속 개방을"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문을 닫은 제주지역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로당이 재개방 되는 등 도내 공공시설이 지지개를 열고 있지만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재개방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 생활 체육인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실내 체육시설은 지난 2월부터 임시 폐쇄됐다. 이는 당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은 물론 도서관, 미

술관, 경로당 등 도내 모든 공공시설이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도는 운영이 중단된 도내 공공시설을 재개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 구간을 거친 뒤 본격 개방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 확대를 전면 유보했다. 현재 실외 체육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이용가능하지만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 도서관은 열람실을 개방하지 않고 자료대출과 반납만 가능하다.

특히 최근 도내 경로당이 재개방되면서 나머지 공공시설의 재개방

여부에 관심이 이어졌으나, 이후 별다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재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배드민턴 동호인 송모(32)씨는 "야외 체육시설은 사전예약제로 개방이 되고 있지만 실내 체육시설은 밀접 접촉 우려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방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실외 체육시설에서 즐기는 족구와 농구 등은 서로 몸을 부딪으며 하는 격한 운동인데, 오히려 몸을 부대끼는 이러한 운동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더 큰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생활 체육인 박모(40)씨는 "도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제한적 운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과 위생 수칙이 잘 지켜진다면 실내 체육시설 개방 또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조만간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인력 등을 채용하고 재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 추경 예산에 체육시설 관리 인력 등의 채용을 위해 예산 11억7000만원을 반영했다"면서 "예산이 확보될 경우 209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도, 12일부터 각 보건소

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한시적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자체와 함께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5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 보건복지국장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상황 설명과 함께 각 지자체에 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응지침을 송부

할 계획이다. 또 집단휴진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 콜센터(129, 1577-1000) 및 건보공단 지사, 보건소 등에 불법 집단휴진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 및 행정시 보건소는 오는 12일부터 파업종료시 까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 점검과 민원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대 '코로나 19 특별장학금' 지급

1학기 납부금액의 11%

제주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학기 등록금 납부액의 11%를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주대는 지난 4월부터 학생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영 총학생회장)와 7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장학금은 올해 1학기 등록금

을 낸 학생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등록생 9805명 중 52%인 5064명이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이며 올해 8월 졸업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장학금 지원 금액은 약 9억 6000만원으로 1인당 최대 49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학기에 등록금을 면제 받았거나 제적·자퇴·휴학을 한 학생들은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복직복직 제주공항 도착 대합실 제주가 장마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5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 대합실에는 제주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많은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강희만기자

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오늘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박우웅 부교육감)는 6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의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제주교육청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수, 언론인, 전현직 교원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제주도 동 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현 위치) 등 공론화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관점의 의견과 제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끝나면 방청객의 질의·답변도 이뤄진다. 전선희기자

유·초등교사 60명 선발 제주 임용시험 사전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2021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사전 예고했다.

선발 예정 규모는 유치원 교사 4명, 초등학교 교사 48명, 특수학교 교

사 8명으로 총 60명(장애인 구분 선발인원 포함)이다. 최종 선발 분야와 인원은 시행계획 공고 시 확정된다.

시행계획 공고는 9월 9일 이뤄질 예정이다.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원서접수 기간을 거쳐 11월 7일 제1차 시험을 치른다.

제2차 시험과 기타 세부일정은 시행계획 공고 시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 (064)710-0354. 전선희기자

연일 폭염에 주거취약가구 안전 '비상'

제주시, 컨테이너 거주민 중점관리... 안부 확인·냉방비 등 지원

장마후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컨테이너 등에서 지내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제주시는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가구에 대해 민·관 인적안전망을 통한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

다고 5일 밝혔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해 시가 중점 관리하는 주거취약가구는 27가구다. 시는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인적안전망인 '주거취약가구 SOS긴급지원단'(가구당 3인)과 연계해 주·회 이상 안부 확인과 여름철 건강관리 안

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특히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지난 6월 제습기(27가구에 624만원), 방충망 교체·설치(6가구에 310만원), 냉방비(가구당 15만원씩 405만원)를 각각 지원했다.

제주시는 자연재해 발생시 주거취약가구의 안전 보호와 신속한 현장 점검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 원스톱 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소방서와 합동 안전점검 실시와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교체·설치(연 2회), 하절기에 선풍기·냉온풍기·차광막·방충망·쿨매트 등 냉방용품과 냉방비를, 동절기에는 겨울이불과 방한복 등 난방용품, 난방비 지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 해소를 위해 공·사립 각급학교에 공공요금 10억6000여만원(교당 평균 583만원)을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전기요금 부담없이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함으로써 학교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다.

전선희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제주 미래 농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농업인 속의 토론회 개최 결과 알림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7월 14일(화) 제주 칼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 개최한 "제주 미래 농업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농업인 속의 토론회"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농업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됨을 농업인 토론 참석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들이 향후 제주농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 농업인 및 도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의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틀로서 활용코자 주된 내용들을 관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토론회 결과 주된 내용

- 1. 현재 제주 농업의 문제점**
 - 비체계적인 유통 및 고가의 물류비용
 - 저출산·고령화·여성화로 인한 인력난
 - 단작 품종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 산지폐기 ○ 취약한 저장성.
- 2. 생산·유통과정에서 폐기되는 농산물을 처리 방안**
 - 신뢰할 수 있는 전수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계획된 생산과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
 - 통합된 물류 및 가공시설의 투자 유치 및 지원
 - 다양한 유통망(생산자 직거래, 협동조합 등)을 위한 체계 및 플랫폼 구축
- 3. 제주지역 농산물의 다양화 방안**
 - 다양한 작물에 맞는 행정의 보조적 지원
 - 행정의 철저한 시장조사로 필요한 다양한 대체작물 재배기술 교육
 - 지속가능한 농업소득이 보장되는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 구축
- 4. 제주도 행정과 농업인 관련 단체·농업인들의 역할**
 - **제주도 행정:** 지속적·안정적인 정책과 보조사업 조건의 완화 및 신청의 간소화
 -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제주도와 농협 주도하의 확실한 통계조사를 통하여 과잉생산 방지 및 지속적인 영농지도·농업인들의 권익보호 및대변자 역할
 - **농업인:**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비상품 유통 근절 협조, 동종 품목끼리 생산자 단체 구성 및 상호 협력.

토론회 결과 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 장 강 수 길 (010-3694-3896), 사무처장 이 석 근(010-3699-0278)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